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중심으로*

이 수 빈

이 희 경[†]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는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원)생 386명을 대상으로, 감사 성향 및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구조 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 간 상관관계 분석을 한 결과,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사이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부분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순차적인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과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 본 원고는 이수빈(2016)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본 연구는 2017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이희경,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미카엘관 806호

Tel: 02-2164-4296, E-mail: ahalee@catholic.ac.kr

‘이타행동 없이 인류는 살아남을 수 없다 (Ramaswamy, 2006)’고 언급될 만큼 이타행동 (altruistic behavior)은 현대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안녕(Cialdini, Darby & Vincent, 1973)과 타인의 안녕, 공동체와 국가의 안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Cozolino, 2006). 이타행동은 사회 내에서 서로 유전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타인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특징이다(Fehr & Fischbacher, 2003). 이타행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친절을 보이고 선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라고 정의되며, 다른 사람을 돕고 보살피는 행동과 태도를 포함한다(Peterson & Seligman, 2004).

이타행동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공감’이라는 변인을 선행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다(김은영 등, 2014; Batson, 2011; Hoffman, 1982). 조효진과 손난희(2006)는 개인의 공감수준에 따라 이타행동의 빈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험적인 연구를 통하여 밝혔으며, 이타행동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염려를 느끼는 이타적 측면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최근 공감이 이타행동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않으며, 무엇이 우리의 돕는 행동을 동기화 하는지에 대해서 거의 아는 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Snyder & Lopez, 2009). 또한 무엇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동기화되며, 세상에 도움의 손길을 주려고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이야기 한다(Feeney & Collins, 2015).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한 목적으로 이타적인 행위를 보이는 여러 의인들이 있다. 대가없이 오롯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사람들이 이타행동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지각할 수 있는 태도 및 내적 경험상태가 준비되어야 한다(Baron, 1997). 개인의 내적 경험상태는 세상을 보는 시각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구자영과 서은국(2007)은 개인의 내적 경험 중 하나인 긍정적 정서상태가 세상을 보는 시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최근 긍정정서 경험 중 하나인 감사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은 감사가 이타행동의 동기화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감사(gratitude)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에 대해 다른 대상의 공헌을 인식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이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감사는 개인의 신체 및 정신 건강, 대인관계, 친사회적 행동, 행복감 증진 등에 긍정적 영향(Grant & Gino, 2010; Bolger et al., 2013)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감사의 증폭(amplification) 이론에 의하면, 감사는 우리가 받은 혜택이나 축복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기쁨을 증폭하여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준다(Watkins, 2014). 또한 감사 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사를 경험한 후 자신이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그러한 혜택을 주변으로부터 받았음을 인식하는 사고 과정을 거친다(Weiner, 1985). 주변 대상의 호의적인 의도와 행위를 인식할수록 감사를 경험하며, 이는 자신이 외부로부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다고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고과정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대상과 자신이 서로 연결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받은 도움에 대하여 보답 혹은 보상해주려는 동기로 작용한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그런데 단순히 감사하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 당사자에게만 느끼는 상호 규범적 정서인 ‘빚진

정서(indebtedness)'가 아니다(Tsang, 2006). 도움을 받게 된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 사회적 행동을 하도록 동기화시키는 도덕적 강화물의 역할을 한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 따라서 감사를 느끼는 이들은 도움을 준 이들을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에게 훨씬 더 쉽게 이타행동을 보일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

이렇듯 최근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나, 무엇이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지 밝히는 연구는 드물다. 기존의 감사에 관한 연구들은 개인의 신체적, 주관적 안녕감에 기여한다는 연구결과들을 보고한데 비해, 최근의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련성을 시사하는 경험적인 연구들은 개인의 안녕을 넘어서 타인과의 안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감사의 유익한 효과의 기제를 규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감사가 기타 다른 긍정정서들과 비교하여 가지는 차별성은 긍정정서를 느끼도록 하는 대상이 있다는 점이다(Emmons, 2005). 또한 자신과 대상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사를 표현하고 타인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이다(Langston, 199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사가 상호 대인관계를 비롯한 사회 내의 결속도 함께 증진시킨다(Adler & Fagley, 2005)는 선행연구와,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를 사회적 유대감(social connectedness)이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들(Algoe & Haidt, 2009; Emmons 2007; Froh, Bono, & Emmons, 2010)에 주목하고자 한다. 친절한 행동의 수혜자는 긍정적 기분을 느끼는

동시에 도움을 준 사람과의 일체감과 연결감을 경험하게 된다(Algoe & Haidt, 2006). 타인과 사회에의 신뢰와 소속감이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공격적이고 비우호적인 것으로 지각(Bushman & Anderson, 2002)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고립된 행동적 접근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타적 행동 등 우호적 행동이 감소하게 됨(Twenge, Baumeister, DeWall, Ciarocco, & Bartels, 2007)은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

반면, 사회적 유대감을 갖고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신념을 형성한다면 타인을 우호적으로 지각하고 다가가기 쉬운 존재로 인식할 수 있다(Lee et al., 2001). 단순하게 감사를 느낀다고 해서 모든 이가 이타행동을 하지는 않기에,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에 어떤 매커니즘이 작용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타행동의 주 유발기제로 연구가 되기 시작한 사회적 유대감은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물리적, 심리적 대인관계를 포괄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소속되어 있음을 지각하는 인지적인 표상과 도식이다(Lee & Robinson, 1995). 또한 사회 안의 소속에 대한 내적 감정을 반영하며 사회적 세계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관적 지각이다(Lee & Robinson, 1998), 사회적 유대감은 나와 타인의 거리를 좁힐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나와 타인을 '공동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나와 타인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지각을 하게끔 영향을 미친다(Brown & Brown, 2006). 이는 사회적 유대감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높은 사회적 유대감을 함양한 개인일지라도 이타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더하여 높은 사회적 유대감이

지난 사람들의 특징인 정서공유와 타인과의 일체감(connectedness)은 타인의 고통을 더 쉽게 느끼기에 타인의 어려움을 도와서 자신의 정서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아닌, 회피의 방법을 택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Cwir et al., 2011) 사회적 유대감이 이타행동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않기에 그 경로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의 탐구가 필요한 상황이다(Hackman et al., 2015).

타인의 어려움을 지각하고, 그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으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개인이 수혜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Conrad & Hedin, 1981). 사회적 책임감(social responsibility)이란 개인의 이익과 연관되지 않더라도 본인이 소속된 사회 구성원의 복지에 적극적으로 관심과 의무감을 가지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말한다(Conrad & Hedin, 1981). 이와 같은 태도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전체로 지각했을 때에 발생하며(Schuyt, Bekkers, & Smit, 2010),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선행한 경우에 형성(Gunnoe, Hetherington, & Reiss, 1999)된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와 친밀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책임감은 단순하게 사회를 유지시키고 사회의 안녕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욕구를 버리고 노력하는 자기희생적 사고가 아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욕구 충족을 해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신념이기에 자기희생적이기 보다는 긍정적이고 그 결과 개인의 안녕감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태도이다(Steele et al., 2008). 이러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사회의 질서를 확립하고, 나은 사회를 만들고

자 하는 기준을 적절하게 함양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 기준은 개인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Aarts & Dijksterhuis, 2003). 사회를 안녕하게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감의 특징은 이타적 가치와 높은 관련성(Kanacri et al., 2014)을 보이는 사회 및 관계 적응적 변인(Pancer, Pratt, Hunsberger, & Alisat, 2007)이기에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이타행동에 선행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ebiroglu, Geldhof, Pinderhughes, Phelps, & Lerner, 2013; Duke, Skay, Pettingell, & Borowsky, 2009). 이러한 개인의 사회적 책임감이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성향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개념의 확립 뿐 아니라 사회의 병리적 측면을 완충할 수 있는 변인일 수 있다(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

이와 같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사회에 번영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태도인 사회적 책임감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서로 영향을 주고 개인이 연결되어 성장할 수 있음을 지각했을 때 발생하며(Schuyt, Bekkers, & Smit, 2010), 타인에 대한 신뢰감이 선행한 경우에 형성(Gunnoe, Hetherington, & Reiss, 1999)된다. 이와 같은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개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야기 하는 연결감은 다른 말로 ‘사회적 유대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사회에 대한 신뢰와 친밀을 반영하는 사회적 유대감이 사회적 책임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으나,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감을 보고하였을 시에 더 높은 사회적 참여와 시민성을 보여주며(Lenzi, et al., 2013), 상호간의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기부터 발달되어 사회적 책임감에 영향

을 준다(Gunnoe, Hetherington, & Reiss, 1999). 또 사회적 유대감의 근간이 되는 가족 간의 유대와 친밀감은 사회적 책임감과 정적으로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Lenzi, Vieno, Santinello, Nation, & Voight, 2014)들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한편, 감사는 개인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심리적, 정신적 상태를 불러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타인에게 더욱더 관대해지며, 더욱더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오는 계기와 마음가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덕적 정서(moral emotion)라고 불리운다(Emmons, & McCullough, 2003). 여기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감사가 타인을 위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며,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책임감(McCullough, Emmons, & Tsang, 2002)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Seligman 등(2005)이 실시한 감사 방문 개입의 경험적 연구에서도 감사를 느꼈던 대상에게 그 때 도와준 일이 현재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안녕감이 높아졌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돕고자하는 마음가짐을 갖게되었다는 보고를 제시하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감사를 느꼈던 대상을 넘어서 다른 타인에게로 확장된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감사가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으며, 자신이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느낄 때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타행동을 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에 개인의 마음가짐과 내면의 상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전의 연구들에서 감사와 사회적 책임감간의 관계성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존재하지 않

으며,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책임감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던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당사자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책임감을 넘어서 다른사람에게 유익한 도움으로 기여하고자하는 책임감을 갖는지를 탐색하려 한다.

위와 같은 선행 연구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타행동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발생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 때, 감사가 타인과의 친밀감을 반영하는 변인인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이 친밀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사회적 책임감이 높아져, 사회의 전반의 안녕감을 불러올 수 있는 이타행동의 발생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가정한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감사는 이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개인의 안녕감과 삶의 번영을 이끌어오는 주요한 변인으로 탐색되어져 왔다. 그러나, 감사는 단순히 나 자신의 안녕을 만드는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녕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다(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사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 문제 1.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가 있는가?

가설 1-1.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은 정적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문제 2.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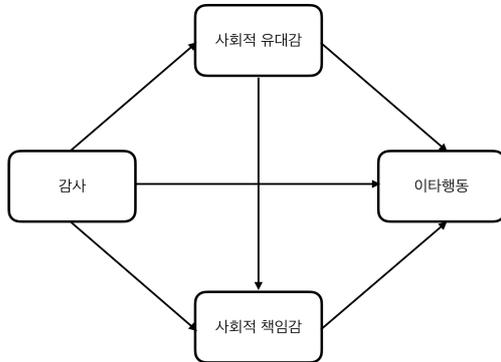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가설 2-1. 사회적 유대감은 감사와 이타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2. 사회적 책임감은 감사와 이타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2-3.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은 감사와 이타행동의 관계를 연속매개 할 것이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해 경기도 소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인원은 총 393명이었고, 그 중 응답을 빠뜨리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7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386명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108명(28.0%), 여자가 273명(70.7%), 응답 없음이 5명(1.3%)이었고, 평균연령은 19.61세(표준편차=2.21)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38명(61.7%), 2학년이 63명(16.3%), 3학년이 54명(14.0%), 4학년이 23명(6.0%), 대학교 졸업생이 1명(0.3%), 대학원 석

사가 2명(0.5%), 기타가 5명(1.3%)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감사성향 척도

본 연구에서 감사를 측정하기 위해 McCullough 등(2002)이 개발하고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2006)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McCullough 등(2002)은 감사를 ‘긍정적 사건이나 결과를 경험할 때 다른 사람의 선의에 대하여 인식하고 감사하는 경향성’이라 정의하였다. 전체 6문항으로, 6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감사성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2006)의 연구에서 감사성향 척도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2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내적합치도는 .82였다.

이타 행동 척도

본 연구에서 이타 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Eisenberg와 Mussen(1989)이 사용한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김수연(1995)이 번안한 척도와 Rushton과 동료들(1981)의 이타성 자기보고식 검사를 기초로 이숙정(200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협력하기, 나누기, 위로하기, 돕기, 양보하기 등을 내용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이타행동 경향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이숙정(2001)의 연구에서 이타행동 척도의 내적합치도는 .94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8이었다.

사회적 유대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ee와 Robbins(1995)가 개발한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s을 Lee등(200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소속과 대인 관계적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라고 개념화한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한 척도로써,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사회적 유대감을 측정하는 11문항과 사회적 비유대감을 측정하는 9문항으로 이루어진 6점 Likert식 척도이다. 사회적 비유대감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역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유대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Lee 등(2001)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92이었다.

사회적 책임감 척도

본 연구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eterson과 Seligman(2004)이 제시한 VIA 강점척도(VIA-IS)를 기초로 권석만과 동료들(2010)이 개발하고 표준화한 성격강점검사(Character Strengths Test: CST)의 하위 척도를 사용하였다. 강점 척도는 6개의 핵심덕목과 24개의 하위강점 그리고 피검자의 검사태도를 측정하는 사회적 선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10문항씩 총 2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보살피려는 태도인 책임의식과 충성, 협동을 반영하는 사회적 책임감' 문항들을 선택하여 활용하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4점 Likert 척도로 평정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책임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석만(201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7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0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과 Amo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를 사용하여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등 기술적인 통계부분을 살펴본 뒤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그 뒤,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문제인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Amos 21.0의 구조 방정식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인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매개 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SPSS Macro를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감사,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에 대한 기술 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고,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주요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결과를 보면 감사는 이타행동($r = .498$), 사회적 유대감($r = .542$), 사회적 책임감($r = .458$)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p < .01$)을 보였다. 이타행동은 사회적 유대감($r = .459$)과 사회적 책임감($r = .537$)과 유의미한 정적상관($p < .01$)을 보였다. 사회적 유대

표 1. 주요 변인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치

	1	2	3	4
1. 감사	-			
2. 이타 행동	.498**	-		
3. 사회적 유대감	.542**	.459**	-	
4. 사회적 책임감	.458**	.537**	.535**	-
<i>M</i>	4.60	3.55	4.23	1.58
<i>SD</i>	0.72	0.41	0.46	0.46
왜도	-.42	-.17	-.55	.06
첨도	.06	.20	.36	-.10

* $p < .05$, ** $p < .01$.

감은 사회적 책임감($r = .535$)과 유의미한 정적상관($p < .01$)을 보였다. 이로써 감사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은 각각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연구 1의 가설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측정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의 절대 값이 각각 2와 7을 넘지 않아 모든 측정 변인의 정상 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est, Finch, & Curran, 1995). 이에 따라 구조방정식을 이용한 경로 분석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측정모형검증

구조모형 검증을 통해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전에 측정 모형의 검증을 통해 측정 변인들이 얼마나 잠재 변인을 잘 측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였다. 이 때, 문항 꾸러미(item parceling)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할 경우, 개별 문항을 모두 사용하거나, 문항의 합(또는 평균)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할 때 보다 자료의 비정규성 수준이 줄어들 뿐 아니라 모

형의 적합도가 향상되는 등의 이점이 있다(Bagozzi & Edwards, 1998).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문항 꾸러미를 제작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단일 요인인 감사는 문항 그대로를 분석에 사용하였고,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은 균형 할당 방법(item-to-construct balance)을 사용하여 측정변인을 생성해냈다. 측정변인에 사용할 문항 꾸러미를 제작한 방법은 우선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한 후, 각 문항을 요인 부하량에 따라 순서대로 정렬하였다, 그 뒤 모든 꾸러미들이 잠재변인에 동일한 부하량을 가질 수 있도록 요인 부하량이 가장 높은 문항과 가장 낮은 문항을 짝지어 문항을 묶었다.

측정 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chi^2(df=146, N=386)=376.619, p=0.000, CFI=.946, NFI=.915, TLI=.936, RMSEA=.064$ 으로 나타났다. 이는 홍세희(2000)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측정모형이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간의 모수 추정치는 각각 표 2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χ^2	df	CFI	NFI	TLI	RMSEA
측정모형	376.619	146	.946	.915	.936	.064

표 3. 측정 모형의 요인 부하량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 E.	C. R.
감사	감사1	1	0.57		
	감사2	1.03***	0.71	0.10	10.31
	감사3	1.16***	0.72	0.11	10.46
	감사4	1.41***	0.75	0.13	10.67
	감사5	1.14***	0.76	0.10	10.79
	감사6	0.97***	0.50	0.11	8.11
이타행동	이타행동1	1	0.72		
	이타행동2	0.93***	0.72	0.06	13.53
	이타행동3	1.19***	0.79	0.08	14.85
	이타행동4	0.98***	0.73	0.07	13.83
	이타행동5	1.17***	0.78	0.08	14.68
	이타행동6	1.04***	0.73	0.07	13.67
사회적유대감	사회적유대감1	1	0.90		
	사회적유대감2	0.81***	0.87	0.03	25.41
	사회적유대감3	0.97***	0.88	0.03	26.21
	사회적유대감4	1.09***	0.89	0.04	26.94
사회적책임감	사회적책임감1	1	0.76		
	사회적책임감2	1.07***	0.82	0.07	15.18
	사회적책임감3	1.30***	0.78	0.08	14.61

과 표 3에 제시하였다.

구조모형 및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는 감사와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사

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각 변인들 간 선행 연구와 이론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부분 매개 모형을 연구 모형으로 설정하고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

표 4. 연구모형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계수, 표준오차, 임계치

			B	β	S. E.	C. R.
감사	→	사회적유대감	3.68	0.57	0.47	7.816***
감사	→	사회적책임감	0.63	0.28	0.15	4.121***
감사	→	이타행동	0.84	0.26	0.22	3.777***
사회적유대감	→	사회적책임감	0.15	0.43	0.02	6.763***
사회적유대감	→	이타행동	0.05	0.09	0.03	1.511
사회적책임감	→	이타행동	0.63	0.43	0.10	5.951***

*** $p < .001$

형(그림 1)을 분석한 결과, 모형에 대한 적합도는 $\chi^2(df=146, N=386)=376.619, p=0.000, CFI=.946, NFI=.915, TLI=.936, RMSEA=.064$ 으로 자료 해석에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모형의 표준화계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및 임계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의 사회적 유대감이 이타행동으로 가는 경로($\beta=.09, n.s.$)를 제외한 모든 직접경로가 유의하였다. 먼저, 감사는 이타행동($\beta=.26, p<.001$), 사회적 유대감($\beta=.57, p<.001$), 사회적 책임감($\beta=.43, p<.001$)에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유대감은 사회적 책임감에 정적 영향($\beta=.43, p<.001$)을 미치며, 사회적 책임감은 이타행동에 정적 영향($\beta=.43,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모형의 표준화된 경로 계수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감사,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므로,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를 사회적 책임감이 부분 매개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감사와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고,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경로계수가 유의하였으므로 감사와 이타행동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부분연속매개하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매개효과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하여 Hayes, Preacher, & Mayers (2011)가 개발한 Macro인 Multiple Step Multiple Mediation Procedure (MEDTHREE)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감사와 사회적 유대감($\beta=.572, p<.001$),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beta=.435, p<.001$), 감사와 사회적 책임감($\beta=.289, p<.001$),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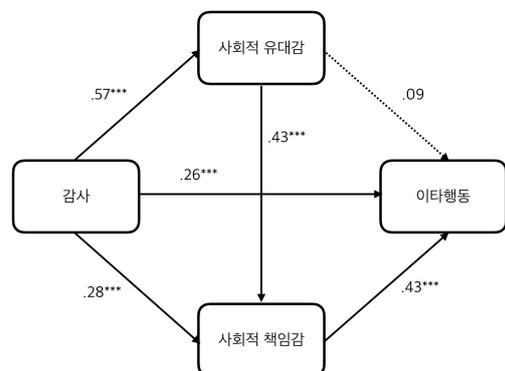


그림 2. 연구 모형 및 경로계수

책임감과 이타행동($\beta=.430, p<.001$) 간의 경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와 이타행동($\beta=.261, p<.001$) 간의 경로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적 유대감과 이타행동 간의 경로($\beta=.097, p=.131$)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회적 책임감이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를 부분매개하며,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부분 연속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 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 절차를 이용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2000개의 Bootstrap 표본을 생성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효과 하한값과 상한값은 0.0050과 0.4051이었으며,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 하한 값과 상한 값은 각각 0.1176과 0.3381으로 95%의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연속 매개효과 하한 값과 상한 값은 0.1189와 0.2964였고, 여기에서도 95% 신뢰구간에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연속 매개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따라서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에서 사회적 유대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2-1과,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에서 사회적 책임감이 매개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2-2, 마지막으로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표 5. 매개모형의 경로계수와 Bootstrap을 통한 매개 효과 검증

모형 경로계수			Coeff	S. E.	t	
감사	→	사회적유대감	1.6642	0.1345	12.3157***	
감사	→	사회적책임감	0.2514	0.0541	4.6499***	
사회적유대감	→	사회적책임감	0.1390	0.0174	7.9660***	
사회적유대감	→	이타행동	0.1201	0.0461	2.6034	
사회적책임감	→	이타행동	0.8550	0.1266	6.7555***	
감사	→	이타행동	0.7283	0.1359	5.3583***	
간접 효과(with bootstrap percentile 95%CI and standard errors)						
			Effect	LL95%CI	UL95%CI	BootSE
Total			0.6126	0.4033	0.8630	0.1177
감사→사회적유대감→이타행동			0.1999	0.0050	0.4051	0.1009
감사→사회적책임감→이타행동			0.2149	0.1176	0.3381	0.0570
감사→사회적유대감→사회적책임감→이타행동			0.1978	0.1189	0.2964	0.0457

*** $p < .001$

Number of Bootstrap Sample: 2000

사회적 책임감이 연속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2-3이 성립함을 확인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감사가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을 통하여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경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감사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 이타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감사가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갖는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사회적 유대감은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며,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설정한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변인인 감사, 이타행동,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모두 정적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첫 번째 가설이 지지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감사와 이타행동이 사회적 유대감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최윤정, 추병완, 2015; 추병완, 2015; Aron et al., 1992; Hruschka, 2010; Jones & Rachlin, 2006; Leider et al., 2009; Rachlin & Jones, 2008; Strombach et al., 2014)과 맥락을 같이하며, 높은 수준의 감사와 사회적 유대감, 사회적 책임감은 높은 수준의 이타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는 감사를 많이 경험할수록 이타행동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러한 이유 중 하나로 사회적 유대감이 제안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개인의 감사가 타인과의 가까움과 친밀함을 지각할 수 있게 하여(Waugh & Fredrickson, 2006) 이타행동을 실행할 수 있는 동기를 높인다는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감사라는 도덕적 정서는 발생 시 즉각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몇 안 되는 정서 중 하나이다(Algoe & Haidt, 2009). 이러한 감사는 타인에게서 받은 호혜와 우호적 태도를 지각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치며, 타인에게 그 호혜를 되돌리는데에 방아쇠가 될 수 있다(McCullough, Kilpatrick, Emmons, & Larson, 2001)는 선행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사를 느끼는 이들이 자신이 받은 기쁜 선물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목하고자 하였으며, 타인으로 받은 호혜를 지각할 때에 타인과의 끈끈한 유대감이 견고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의 관계에서 사회적 책임감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감사라는 도덕적 정서가 단순하게 개인의 정신건강과 긍정성만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행동하고, 타인에게 관대해지며,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동기를 불러오는 계기와 마음가짐을 만들고 책임감을 불러일으킨다(Emmons, & McCullough, 2003)라는 이론적 연구와, 감사가 타인을 위하고자 하는 동기를 만들어내고 친사회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책임감(McCullough, Emmons, & Tsang, 2002)을 갖게 된다는 서술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결과이다. 건강한 사회적 책임감

은 시민의식, 충성심, 협동심과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되기도 하지만, 타인을 도울 때 보상에 개의치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용어보다 이타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Berkowitz & Lutterman, 1968).

넷째, 감사가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부분 연속매개한다는 이중매개 모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이 동시에 매개 변인으로 투입되었을 시, 사회적 유대감이 이타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작아지고, 사회적 책임감을 통해서 만이 이타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로 변화된다. 그러므로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변인이 이타행동을 예측하는데에 매우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감사를 느끼는 대상자를 넘어 낯선 이나 상황에 연관되어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타행동을 실시할 때에 사회적 책임감이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감사와 이타행동 사이에 매개하는 변인이 사회적 유대감일 수 있다는 이전 연구들(Algoe & Haidt, 2009; Emmons 2007; Froh, Bono, & Emmons, 2010)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한편 사회적 유대감과 이타행동 사이에 추가 변인의 필요성(Brown & Brown, 2006)을 보완하여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미루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감사에 관한 연구들은 감사가 개인의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Adler & Fagley, 2005; Emmons, 2008; Froh, Sefick, & Emmons, 2008; Seligman et al., 2005, McCullough, Emmons, & Tsang, 2002;

Wood, Joseph, & Maltby, 2009)에 대부분 초점 맞춰왔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안녕은 물론, 타인의 안녕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감사의 역할에 대해서 밝히고자한데 의미가 있다. 감사와 이타행동이 관련된다는 본 연구 결과는 감사가 단지 개인의 안녕감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감사의 역할을 한층 더 확장시켰다는 것에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이타행동을 하는 동기와 내적 과정에 대한 새로운 탐색 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감과 이타행동간의 관련성을 제안하였으나, 감사가 이타행동과 관련된다는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이타행동을 하는 선행변인을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이타행동의 새로운 선행 변인으로 사회적 유대감이 최근 제시됨(Brown & Brown, 2006)에 따라 여러 가지 경험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Hackman과 동료들(2015)은 사회적 유대감이 완전하게 이타행동을 예측하지 않는다며, 사회적 유대감과 이타행동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계를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사회적 유대감은 사회적 책임감을 통해 이타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결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Hackman과 동료들(2015)이 제기한 사회적 유대감과 이타행동 사이를 매개할 수 있는 새로운 변인을 제시해야한다는 한계점을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련성과 그 구체적인 과정 변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통해 그동안 주로 이야기되었던 긍정정서

가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 기여한다는 긍정심리학의 연구결과들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와 사회적 존재로서의 능동적 책임감을 갖게 함으로 이타행동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힘으로써 긍정정서가 건강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즉, 감사는 단순하게 고마움을 느끼는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 타인과 유대감을 깊이 느끼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개인과 가족, 직장 등 사회 모두의 안녕에 일조하는 행동을 촉진하게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셋째, 사회적 책임감의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전까지 많은 연구들은 책임감이 가지는 중압감과 스트레스 등에 초점 맞추었기에 책임감을 대부분 병리나 완벽주의, 강박(송민정, 이민규, 2011; Arntz et al., 2007; Cogle et al., 2007)에 연결하여 설명해왔다. 그러나 분명하게 책임감에는 사회를 안정시키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그리고 타인을 위하고자 하는 긍정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책임감이 인간의 강점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는 이유(김지영, 권석만, 2015)도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까지 심리학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지 않았던 책임감의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면모를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책임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그리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와 이타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과 사회적 책임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 본 연구는 개인의 회상을 기반으로 한 설문지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 따라서 각 변

인들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설명되어지는 하나 동시에 모든 변인을 측정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변인간의 인과관계를 말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서영석, 2010) 감사가 선행을 하고 그때 사회적 유대감이 발생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느끼게 되고 이타행동을 할 것이라는 연구의 경로 상,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종단적 설계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종단 설계 내에서 여러 번의 확인을 통하여 연구의 모델을 더욱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탐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구자영, 서은국 (2007). 행복의 양이 한정되어 있다는 믿음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1-19.
- 권석만, 유성진, 임영진, 김지영 (2010). 성격강점 검사 전문가용 지침서. 서울: 학지사.
- 권선중, 김교현, 이홍석 (2006). 한국판 감사 성향 척도 (K-GQ-6) 의 신뢰도 및 타당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177-190.
- 김은영, 설선희, 유하나, 김학진, 송현주 (2014). 강화학습과제에서의 어머니의 이타적 성향과 자녀의 공감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9(2), 117-136.
- 김지영, 권석만 (2015). 성격강점과 성격장애가 안녕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

- 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1(1), 1-19.
- 서영석 (2010). 상담심리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147-1168.
- 송민정, 이민규 (2011). 책임감과 기억확신이 강박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0(3), 629-645.
- 신애자, 김용수 (2016). 감사 연구 동향 및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상담학연구*, 17(1), 149-168.
- 이숙정 (2001). 아동의 다중지능과 친사회적 행동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미, 이윤주 (2013). 내담자가 지각한 공감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14(4), 2027-2048.
- 조효진, 손난희 (2006). 공감능력과 이타행동. *상담학연구*, 7(1), 1-9.
- 최윤정, 추병완 (2015). 초등학생의 학교 유대감 증진을 위한 감사 연습 방안. *도덕윤리교육연구*, 48(단일호), 297-337.
- 최해연 (2012). 한국의 학생과 직장인이 경험하는 긍정정서의 구조. *한국심리학회: 사회 및 성격*, 26(4), 73-88.
- 추병완. (2015). 학교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감사의 기능. *초등도덕교육*, 49(단일호), 67-90.
- Aarts, H., & Dijksterhuis, A. (2003). The silence of the library: environment, situational norm,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8-28.
- Adler, M. G., & Fagley, N. S. (2005). Appreciation: Individual differences in finding value and meaning as a unique predictor of subjective well being. *Journal of Personality*, 73(1), 79-114.
- Algoe, S. B., & Haidt, J. (2009). Witnessing excellence in action: The “other praising” emotions of elevation, gratitude, and admiratio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4(2), 105-127.
- Arntz, A., Voncken, M., & Goosen, A. C. (2007). Responsibility and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An experimental test.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5(3), 425-435.
- Aron, A., Aron, E. N., & Smollan, D. (1992). Inclusion of Other in the Self 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4), 596-612.
- Bagozzi, R. P., & Edwards, J. R. (1998). A general approach for representing constructs in organizationa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1), 45-87.
- Baron, R. A. (1997). The sweet smell of ... helping: Effects of pleasant ambient fragrance on prosocial behavior in shopping mal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5), 498-503.
- Batson, C. D. (2011). *Altruism in humans*. USA: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
- Bebiroglu, N., Geldhof, G. J., Pinderhughes, E. E., Phelps, E., & Lerner, R. M. (2013). From family to society: The role of perceived parenting behaviors in promoting youth civic engagement. *Parenting*, 13(3), 153-168.
- Berkowitz, L., & Lutterman, K. G. (1968). The traditional socially responsible personality.

- Public Opinion Quarterly*, 32(2), 169-185.
- Bolier, L., Haverman, M., Westerhof, G. J., Riper, H., Smit, F., & Bohlmeijer, E. (2013). Positive psychology interventions: A meta-analysis of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BMC Public Health*, 13(119), 119-138.
- Brewer, M. B. (2004). Taking the Social Origins of Human Nature Seriously: Toward a More Imperialist Social Psycholog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8(2), 107-113.
- Brown, S. L., Nesse, R. M., Vinokur, A. D., & Smith, D. M. (2003). Providing support may be more beneficial than receiving it: Results from a prospective study of mortality. *Psychological Science*, 14(4), 320-327.
- Brown, S. L., & Brown, R. M. (2006). Selective investment theory: Recasting the functional significance of close relationships. *Psychological Inquiry*, 17(1), 1-29.
- Bushman, B. J., & Anderson, C. J. (2002). Violent Video Games and Hostile Expectations: A Test of the General Aggression Mode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12), 1679-1686.
- Cialdini, R. B., Darby, B. L., & Vincent J. E. (1973) Transgression and altruism: A case for hedonism,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9(6) 502-516.
- Cwir, D., Carr, P. B., Walton, G. M., & Spencer, S. J. (2011). Your heart makes my heart move: Cues of social connectedness cause shared emotions and physiological states among strang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7(3), 661-664.
- Cicognani, E., Pirini, C., Keyes, C., Joshanloo, M., Rostami, R., & Nosratabadi, M. (2008). Social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social well being: A study on American, Italian and Iranian university stud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9(1), 97-112.
- Conrad, D. E., & Hedin, D. (1981). National assessment of experiential education: Summary and implications. *Journal of Experiential Education*, 4(2), 6-20.
- Cogle, J. R., Lee, H. J., & Salkovskis, P. M. (2007). Are responsibility beliefs inflated in non-checking OCD patients?.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1), 153-159.
- Cozolino, L. (2006). The social brain. *Psychotherapy in Australian*, 12(2), 12-16.
- Duke, N. N., Skay, C. L., Pettingell, S. L., & Borowsky, I. W. (2009). From adolescent connections to social capital: Predictors of civic engagement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44(2), 161-168.
- Dunn, J. R., & Schweitzer, M. E. (2005). Feeling and believing: the influence of emotion on tru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5), 736.
- Eisenberg, N., & Mussen, P. H. (1989). *The roots of prosocial behavior in childr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 Shelton, C. M. (2002). Gratitude and the science of positive psychology. In C. R. Snyder & S. J. Lopez(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459-471).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Emmons, R. A. (2005). Striving for the sacred: Personal goals, life meaning, and religion. *Journal of Social Issues*, 61(4), 731-745.

- Emmons, R. A.(2007). 마음을 여는 감사의 발견 Thanks!. (이창희 역). 서울: 위즈덤하우스.
- Feeney, B. C., & Collins, N. L. (2015). A New Look at Social Support: A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riving Through Relation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9(2), 113-147.
- Fehr, E. & Fischbacher, U. (2003) The nature of human altruism, *Nature*, 425(6960), 785-791.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1), 1a.
- Fredrickson, B. L. (2001). The role of positive emotions in positive psychology: The broaden-and-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American Psychologist*, 56(3), 218-226.
- Fredrickson, B. L., & Joiner, T. (2002). Positive emotions trigger upward spirals toward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13(2), 172-175.
- Froh, J. J., Bono, G., & Emmons, R. (2010). Being grateful is beyond good manners: Gratitude and motivation to contribute to society among early adolescents. *Motivation and Emotion*, 34(2), 144-157.
- Froh, J. J., Emmons, R. A., Card, N. A., Bono, G., & Wilson, J. A. (2011). Gratitude and the reduced costs of materialism in adolescents.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2(2), 289-302.
- Froh, J. J., Sefick, W. J., & Emmons, R. A. (2008). Counting blessings in early adolescents: An experimental study of gratitude and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46(2), 213-233.
- Grant, A. M., & Gino, F. (2010). A little thanks goes a long way: Explaining why gratitude expressions motivate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6), 946-955.
- Gunnoe, M. L., Hetherington, E. M., & Reiss, D. (1999). Parental religiosity, parenting style, and adolescent social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9(2), 199-225.
- Hackman, J., Danver, A., & Hruschka, D. J.(2015). Closeness is enough for friends, but not mates or kin: mate and kinship premiums in India and U.S.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6(2), 137-145.
- Hayes, A. F., Preacher, K. J., & Myers, T. A. (2011). *Mediation and the estimation of indirect effects in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sourcebook for political communication research: Methods, measures, and analytical Techniques*, New York: Routledge.
- Hoffman, M.L. (1982). Development of prosocial motivation: Empathy and guilt. In N. Eisenberg-Berg, (Ed.), *Development of prosocial behavior*. New York: Academic Press, 281-313.
- Hruschka, D. J. (2010). *Friendship: Development, ecology, and evolution of a relationship*. USA: Univ of California Press.
- Jones, B., & Rachlin, H. (2006). Social discounting. *Psychological Science*, 17(4), 283-286.
- Langston, C. A. (1994). Capitalizing on and coping with daily-life events: Expressive responses to positive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6), 1112-1125.
- Lee, R. M., & Robbins, S. B. (1995). Measuring Belongingness: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 social assurance scal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2), 232-241.
- Lee, R. M., & Robbins, S. B. (1998).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onnectedness and anxiety, self-esteem, and social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3), 338-345.
- Lee, R. M., Draper, M., & Lee, S. (2001). Social connectedness, dysfunctional interpersonal behaviors, and psychological distress: Testing a mediator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3), 310-318.
- Leider, S., Möbius, M. M., Rosenblatt, T., & Do, Q. A. (2009). Directed altruism and enforced reciprocity in social network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24(4) 1815-1851.
- Lenzi, M., Vieno, A., Pastore, M., & Santinello, M. (2013). Neighborhood social connectedness and adolescent civic engagement: An integrative model.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4, 45-54.
- Lenzi, M., Vieno, A., Santinello, M., Nation, M., & Voight, A. (2014). The role played by the family in shap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t civic responsibility.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4(2), 251-278.
- Lopez, S. J. (2011) 인간의 변영 추구하기. (권석만, 임영진, 신우승 역). 서울: 학지사
- Lopez, S. J. (2011) 정서적 경험 활용하기. (권석만, 임선영, 김기환 역). 서울: 학지사
- McCullough, M. E., Emmons, R. A., & Tsang, J. A. (2002). The grateful disposi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topograph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1), 112.
- McCullough, M. E., Kilpatrick, S. D., Emmons, R. A., & Larson, D. B. (2001). Is gratitude a moral affect?. *Psychological Bulletin*, 127(2), 249.
- Pancer, S. M., Pratt, M., Hunsberger, B., & Alisat, S. (2007). Community and political involvement in adolescence: What distinguishes the activists from the uninvolve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6), 741-759.
- Park, N.,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Strengths of Character and Well-Being.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3(5), 603-619.
- Peterson, C.,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classification and handbook*.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Rachlin, H., & Jones, B. A. (2008). Social discounting and delay discounting.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1(1), 29-43.
- Ramaswamy, T. S. (2006). *Your god my god: Journey of the quivering heart*. Philadelphia: Xlibris
- Rushton, J. P., Chrisjohn, R. D., & Fekken, G. C. (1981). The altruistic personality and the self-report altruism sca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4), 293-302.
- Schuyt, T., Bekkers, R., & Smit, J. (2010). The Philanthropy Scale: A sociological perspective in measuring new forms of pro social behaviour. *Social Work & Society*, 8(1), 121-135.
- Schwartz, S. H. (1994). Are there universal aspects in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human values?. *Journal of Social Issues*, 50(4), 19-45.
- Seligman, M. E., & Csikszentmihalyi, M. (2000). Special issue: Positive psychology. *American Psychologist*, 55(1). 5-14.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 Snyder, C. R., & Lopez, S. J. (2009). *Oxford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eele, W. R., Schreiber, G. B., Gultinan, A., Nass, C., Glynn, S. A., Wright, D. J., & Garratty, G. (2008). The role of altruistic behavior, empathetic concern, and social responsibility motivation in blood donation behavior. *Transfusion*, 48(1), 43-54.
- Strombach, T., Jin, J., Weber, B., Kenning, P., Shen, Q., Ma, Q., & Kalenscher, T. (2014). Charity begins at home: Cultural differences in social discounting and generosity. *Journal of Behavioral Decision Making*, 27(3), 235-245.
- Tsang, J. (2006). Gratitude and prosocial behavior: An experimental test of gratitude. *Cognition and Emotion*, 20(1), 138-148.
- Twenge, J. M., Baumeister, R. F., DeWall, C. N., Ciarocco, N. J., & Bartels, J. M. (2007). Social exclusion decreases pro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1), 56.
- Watkins, P. (2014). *Gratitude and the Good Life: Toward a Psychology of Appreciation*. New York, NY: Springer.
- Waugh, C. E., & Fredrickson, B. L. (2006). Nice to know you: Positive emotions, self - other overlap, and complex understanding in the formation of a new relationship.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2), 93-106.
- Weiner, B. (1985). An attributional theory of achievement motivation and emotion. *Psychological Review*, 92(4), 548.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In R. H. Hoyle (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pp. 56-75). Thousand Oaks, CA: Sage.
- Wood, A. M., Joseph, S., & Maltby, J. (2009). Gratitude pred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bove the Big Five face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4), 443-447.

원 고 접 수 일 : 2018. 06. 28.

수정원고접수일 : 2018. 11. 06.

최종게재결정일 : 2018. 11. 26.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 Focusing on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Su-Bin Lee

Hee-Kyung Le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ra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For this purpose, questionnaires survey was conducted on 386 college students using Korean version of the Gratitude Questionnaire(K-GQ-6), Altruistic behavior scale, The Social Connectedness and the Social Assurance Scale, and Social Responsibility subscale in Character Strengths Test(CST).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finding in a correlation analysis indicated that gratitude, social connectedness, social responsibility, altruistic behavior were positively correlated. Second, Social connectedness showed par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between gra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 Third, Social connectedness and Social responsibility showed partial sequential mediating effect in relation between gratitude and altruistic behavior. In conclusion, implications for counseling,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

Key words : *Gratitude, Social Connectedness, Social Responsibility, Altruistic Behavior*